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3월 9일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5호구 제43호분구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일성정치대학에 도착하시자 경축의 춤바다를 펼치던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명절일색으로 단장된 선거장으로 향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조선인민군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거표를 받으시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조선인민군 제855군부대 부대장 김광혁에게 투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의원후보자를 만나시어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의원후보자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부대를 찾아주시었던 위대한 장군님의 유혼을 순간도 잊지 말고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가라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거를 마치신 다음 대학을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먼저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수습여차례의 현지지도로 받은 대학의 연혁사에 대하여 주의깊게 들어주시면서 인민군대를 사상의 강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바쳐오신 대원수님

들의 불분불휴의 로고를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일성정치대학은 지난 기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수많은

정치일군들을 양성해냄으로써 혁명무력강화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하시면서 대학이 쌓아올린 빛나는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은

군건설에서 정치사상강군화를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고 하시면서 김일성정치대학은 정치사상강군건설의 담당자들을 키워내는 무겁고도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어 전자도서관, 군인회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학에서 모든 학생들을 다채다능한 정치일군들로 키우기 위하여 훌륭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그 리용을 실속있게 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정치일군양성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고있는 교직원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의 당정치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김일성정치대학의 위치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교수교양과 교육환경, 생활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학의 교직원들이 선군혁명위업수행의 골간들을 키워내는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당성이 강하고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정치일군들을 더 많이 양성해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예술선전대경연에 당선된 예술선전대들의 공연을 관람하시고 군사학교 교직원들의 사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예술선전대경연에 당선된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 제324군부대, 제233군부대의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공연무대에는 합창 《조선의 힘》, 시랑송 《말하라 선군의 명산 대덕산 이어》, 녀성4중창 《친근한 우리의 최고사령관》, 재담 《높아진다》, 짧은극 《노래폭탄》, 녀성중창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실화이야기 《위대한 전우》, 녀성5중창 《운명도 미래도 말기분》, 선동시극 《역세계 이어가자 백두의 전통을》, 극중창 《우리를 본다》, 토막극 《훈련장의 두 분대장》, 대화시 《최고사령부 지붕아래 우

리 삽니다》, 녀성독창과 어은금병창 《조국찬가》, 녀성2중창 《군민아리랑》, 극선동 《원한의 수직갱》, 합창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는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백두의 혁명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이 맥박치는 전투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예술선전대경연에 참가하여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사상정신적포부를 힘있게 파시한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 제324군부대, 제233군부대의 예술선전대들에 대한 경연평가를 모두 특등으로 할것

을 친히 제의하시고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특별감사를 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커다란 감화력과 높은 호소성, 기동성을 가지고있는 예술선전대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연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군사학교 교직원들의 사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격경기를 시작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기에 참가한 교직원들은 평시에 련

마한 사격술을 보여주었다.

화선을 차지한 사수들이 목표를 정확히 명중하여 높은 점수를 맞을 때마다 관람자들은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교직원들의 사격경기를 주의깊게 보시면서 지휘관들이 총을 잘 쏘야 군인들을 명사수로 준비시킬수 있다고, 그러자면 그들을 양성하는 군사교육기관의 모든 교직원들부터 높은 사격술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사격경기에서는 김일성정치대학이 권총사격에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이 자동보총사격에서 우승하였으며 종합우승은 김일성정치대학이 쟁취하였다.

사격경기총화와 우수한 단체와 교직원

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늘 진행된 사격경기는 훈련을 첫자리에 놓고 제도화, 생활화하여야 군인들을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목표들을 단방에 어김없이 소멸하는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준비시킬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력강화에서 기본은 훈련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사격경기가 끝난 다음 평양항공구락부 선수들의 모범출연이 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새로 개건하고있는 중앙동물원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개건하고있는 중앙동물원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12년 5월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이곳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전면시킴을 직접 발기하시고 개건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

운 사랑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새로 건설하는 7개의 대상들에 대한 골조공사를 끝내고 이미 있던 동물사들에 대한 개건보수도 동시에 힘있게 내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 및 개건하고있는 여러 대상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건새사를 비롯한 새로 일떠세우는 건축물들을 동물

들의 생태학적특성에 맞게 시공하며 참관자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해줄수 있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족관을 비롯한 개건중에 있는 모든 대상들을 인민들에게 웃음과 회열을 안겨주는 즐거운 휴식장으로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중앙동물원을 개건하면서 회귀하고 관찰효과가 좋은 동물들의 충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며 먹이 및 물보장대책과 수의방역체계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중앙동물원의 정문을 동물원의 특색이 살아나게 건설하고 철갑상어못을 꾸리며 원림록화사업도 잘하여 주위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중앙동물원에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에게 동식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상

식을 줄수 있는 종합적인 자연박물관도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앙동물원과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귀중한 유산으로 남겨주신 나라의 재부이며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거점인 동물원을 당에서 제시한 기일안에 훌륭히 개건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미국에 대한 사무친 증오가 활화산처럼 타오른다

《대국》이나, 소국이나

우리의 정당한 로켓발사를 두고 화들짝 놀라 부산을 퍼워대는 미국의 물결이 가 판이다.

방어용로켓을 몇발 쏜 것인데 《도발》이요, 《위협》이요 하고 떠드는것을 보면 실소를 금할수 없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 미사일발사국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벌리는 대규모연습에 투입한 핵잠수함, 구축함 등에 실려있는 미사일만 보아도 그 종류와 수가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런 미국이 우리가 단지 로켓 몇발을 쏘았다고 허둥대는것은 《대국》의 체모에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좁스러운 행동이다.

지금껏 미국은 《초대국》이랍시고 으시대며 세계의 《경찰관》노릇도 하고 《인권재판관》노릇도 해왔다. 국제무대에서 무엇이든지 제가 행성의 주인인

듯이 무력을 과견한다. 중재에 나선다하며 꽤나 위세를 뽐내고 전횡을 부려왔다. 그러나 그 《초대국》의 가면을 한번 벗겨보면 미국은 형편없는 소국이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더 우기 그러하다. 오죽하면 세상사람들이 《미국이 조선에만 안만 서면 한없이 작아진다.》며 야유조소하였겠는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대규모복합불장난소동을 벌리면서 《방어를 위한 연습》을 한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제 집앞에서도 아니고 태평양을 건너와 남의 집문앞에서 사방 불을 놓으며 미쳐돌아가는데도 《방어연습》?

미국이란 원래 그런 나라이다.

가. 이번 로켓발사를 놓고 미국이 벌리는 추태를 두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그렇게도 무서우면 아예 싸움하기를 포기하고 우리와 화평하는 길을 택하든지, 침략전쟁연습을 중지하고 제나라로 돌아가든지.

미국에 한마디 충고하고싶다. 진짜 《대국》이라면 자질구레하게 놀지 말고 좀 크게 놀라.

김영직사범대학 학부장 운동일

식은죽 먹기로 여기고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과렴치한 강도배가 미국이다.

《방어연습》을 한다는 미국인데 우리도 미국앞마당에

막말장사군이 국무장관이라니

미국무장관 케리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매쇄적인 나라》, 《악의 나라》로 비방했다고 한다.

사고수준이 령에 가까운 천치가 아닌지 모르겠다.

까마귀가 까치고 겁다 한다더니 도대체 케리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알면 얼마나 알기에 마귀하듯 혀를 내밀는가.

해방전 사람값에도 들지 못했던 우리 농민들을 어엿한 나라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고 농협지도 보람찬 새 삶을 누리도록 해주었기 바로 공화국이다.

오늘도 공화국은 땅을 다루고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근로자들이 제일이라고 새해

서 방어용이라고 하며 군사연습을 한다면 그들이 과연 납득할수 있을까.

평양시 평천구역 김영철

어리석고 부실한 미국

우리 공화국에서는 미국의 이전 대통령 부위를 풍자한 만담이 오래전부터 전해지며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대통령의 품격은 고사하고 앞뒤도 가리지 못하고 마구 말하고 헐뜯는 부위를 해학적으로 조소한 만담은 어리석은 미국을 풍자하며 듣는 사람마다 폭소를 금치 못하게 하고있다.

하도 부실해서 이름도 부쉬라고 달았다고 했더니... 그 부쉬가 얼마전 서울에

그런데 명색이 미국무장관이라는자가 공화국사회에 대한 초보적인 판별력과 리성도 없이 놀고있으니 《초대국》이라는 미국도 금세를 알만 하다.

공알은 백년 굴러도 수박이 될수 없다고 남을 걸고들며 못되게 노는 미국을 두엄더미에 처박아야 할것이다.

황해북도 곡산군 덕흥동 농장분장장 리철진

하기야 미국에선 돈만 있으면 개들도 주지사선거에 나가고 대통령후보로도 될수 있다니 더 말할 무얼 하겠는가.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산송

선군조선의 억센 무쇠주먹으로

미국이 북침전쟁에 환장해도 단단히 했다.

어제는 《독수리》훈련의 미명하에 핵잠수함을 끌어들이더니 오늘은 공격형첩단미사일을 장비한 이지스순양함이니, 구축함이니 하는것들을 4척이나 조선반도의 동서남해에 끌어들이었으니 말이다.

미국이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고 고야대는 《독수리》연습이 북침전쟁연습이라는것은 이것만 보아도 명백하다.

세상에 날고기 안먹는 승냥이는 없다고 했다.

미국이 야말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은 덮어

장 부쉬까지 반공화국도발에 나선것을 보면 미국이 솟구치는 조선의 기상에 열이 나가지도 이만저만 나가지 않은것 같다.

평양시 보통구역 최순실

놓고 힘으로 억누르고 강압하려고 들뛰는 침략국가이고 악의 제국이다.

하지만 미국은 공화국을 잘못 봐도 함참 잘못 봤다. 바다에서 쳐들어오면 바다에 수상해버리고 공중에서 달려들면 공중에서 박산내며 지상에서 달려들면 지상에서 멸적의 불로화로 시제도 건지지 못하게 하는것이 우리 군대의 기질이다.

아무테로건 덤벼만 들라. 그러면 선군조선의 이 무쇠주먹으로 미국의 사들배를 분질러놓을것이다.

황해북도 송림시 전성로병 김창호

요즘 어딜 가나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자위적인 로켓발사훈련에 대해 《위반》과 《도발》을 운운하는 미국의 강도적치사를 두고 분노하고있는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다.

며칠전 메아리사격관에 취재갔을 때였다. 매년 종을 쏠 때마다 백발백중하는 한 사격에호가에게 그 비결이 무엇인가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명중의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과녁을 정확히 겨누면 됩니다. 저 목표관이 칠천지원수 미국놈의 털가슴이라고 생각하니 저절로 명중이 됩니다. 우리의 증오의 이 과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미국에 대한 조선인민의 증오의 감정이 그대로 어려있지 않은가.

1866년 《서민》호사건으로 조선에 대한 괴물은 침략력사의 첫시작을 뎌 때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의 괴물, 하나의 문화, 하나의 강도로 이어진 조선을 돌로 갈라놓은것도 모자라 지난 수십년간 공화국에 대한 비인간적인 제재와 야만적인 봉쇄로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해온 미제이다.

지금 이 시각도 미국은 머

나면 태평양 건너에서부터 방대한 핵전쟁수단을 끌고와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고있으면서도 공화국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인 로켓발사를 걸고들고 있다.

제국주의미국에 의해 조선인민은 너무도 오랜 세월을 아픔과 고통속에 살아왔다. 하기에 아이들조차 놀이를 해도 미국놈때러놓히기 놀이를 한다.

미국은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증오의 과녁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누구나 그러한 분노의 마음으로 탄알을 채우고 방어쇠를 당기고 있다.

명중의 비결은 사격장의 과녁을 미국놈으로 보는데 있다. 공화국의 어느 사격장에 가보나 군인들과 농적귀소년들,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터뜨리는 말이고 그들의 뇌리에 박힌 《공식》이다. 그 증오의 감정으로 일찌기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무찌르며 위대한 전승의 신화를 창조하였고 그 증오의 감정을 안고 《100년이 걸려도 조선은 다시 일떠서지 못한다.》고 지껄이던 미국의 면전에서 복구건설의 노래

더 높이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일떠세웠다. 미국이 《사회주의종말》을 떠들며 공화국에 공격의 총화살을 돌릴 때에도 미국에 대한 증오와 친백배의 복수심을 넘쳐 분연히 일떠나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봉쇄와 압력의 쇄살을 무시하며 인공지구위성을 우주의 궤도에도 올리였다. 미국에 대한 증오, 조선인민의 이 반미감정은 미국이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압살책동에 열을 올릴수록 더욱 불타오른다.

제재를 가하겠으면 가하라.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반미대전으로.

세기를 이어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쌓이고 쌓인 이 증오와 멸적의 감정은 지금 활화산처럼 무섭게 분출하고있다.

미국이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역사적인 죄악들을 뒤우치지 않고 지금처럼 공화국에 대한 적대정책과 고립압살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증오의 과녁을 향한 천만군민의 복수의 방아쇠는 당겨질것이며 그 탄알은 100% 명중될것이다. 그때에는 미국이란 땅덩어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할수가 없다.

김연희

지금 미국은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며 남조선에서 북침전쟁연습인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핵라켓수단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과 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며 말대로 선제공격적인 핵전쟁연습을 벌리면서도 미국은 뻔뻔스럽게도 입만 벌리면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광고해대고있다. 하도 《절절한》 그 광고타령에 군사적소용인 《방어》의 개념과 성격을 놓고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전쟁연습과 대비분석해보기도 한다.

방어란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적을 격퇴소멸하고 차지한 지역을 완강히 유지하기 위한 전투행동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방어적인 훈련이란 웅장한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자기 나라와 그 주변에서 하는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미국은 수륙만리 대양건너 머나먼 조선반도에까지 와서 전쟁연습을 벌

려놓고있다.

아마 그 어떤 나라가 저들의 문앞에 와서 대규모군사훈련을 하면서 방어를 위한것이라고 한다면 남측은커녕 당장 야단났다고 헐뜯힐것이다.

방어라는 개념이 포괄하고 있는 내용면에서도 그렇다. 방어는 력량상 우세한 적을 쳐물리치고 그에 큰 손실을 주며 차지한 진지나 계선을 완강히 지켜내어 차후 공격으로 넘어가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게 한다.

훈련방식도 특정국가들 《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반군사교류나 작전협동체계를 다지는 훈련과 병중, 군종별훈련 그리고 해상구조와 재난구조훈련같은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해마다 남조선에서 웅근 한계 전정도 치르고남을 수습만의 룩,

《방어》의 탈을 쓴 북침불장난소동

해, 공군병력과 최신전장비들을 동원하여 온 한해를 《키 리졸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 등 전쟁연습으로 보내다싶이 하고있으며 그 내용 역시 상륙작전과 수도점령을 노린 불의적인 기습타격, 기동훈련 등 철저한 공격연습으로 일관하고있다.

미국은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을 자주 거들며 이에 대한 《방어》를 운운하는데 이것 또한 사리에 맞지 않는다.

구래에 말한다면 미국은 지난 기간 본토에 대한 침략을 받아본 일이 없다. 오히려 그 누구의 《대량살상무기위협》과 《핵위협》, 《인권침해》를 떠들면서 그것을 미면에 방지한다는 구실미에 해당 나라들의 코앞에서 대규모군사훈련을 벌리다가 북침의 공격으로 넘어가 저들의 침략적목적

달성하곤 하였다.

1983년 그레나디어에 대한 무력침공, 1989년 파나마침공, 1999년 스르비아 및 크로아티아에 대한 무차별공습, 21세기에 들어와 감행한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 전쟁 등은 미국이 그 무슨 《위협》과 《도발》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벌려놓은 침략전쟁들이었다.

그러한 미국이 《방어적》이라고 광고하며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그대로 뒤집어 놓은 선제공격연습이다. 그들의 《방어》타령은 저들의

침략전쟁연습을 합리화하기 위한 꾀변으로서 세계여론에 대한 기만과 우롱이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오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이고 라틴족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해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미국식 강도논리가 통할 때는 이미 지나갔다.

오늘날 미국의 기만적인 《방어》타령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방어》의 간판밑에 진행되는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을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하면서 침략자들이 달려들면 서도 없이 단에 요정렬 단단의 전투동태를 갖추고있다.

본사기자 서희

미국은 공화국의 로켓발사훈련을 함부로 걸고들지 말아야 한다

재증조선경제인련합회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은 공화국의 로켓발사훈련을 함부로 걸고들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성명은 공화국의 자위적인 로켓발사훈련은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평화를 총대호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하고 자위적인 군사행동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그 무슨 《지강도도발》이요, 《유엔안보리사회결의위반》이요 하는 당치않은 꾀변을 늘어놓으면서 비밀하게 놀아대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공화국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것을 거듭 요구하였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핵잠수함을 비롯한 첨단핵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고 강도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조선반도정세

를 전쟁정계로 몰아가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 세상에 핵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을 벌리는데 대해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었을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침략전쟁행위에 대해서는 《방어적》이며 《년례적》이라고 정당화하고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훈련에 대해서는 《도발》이라고 양말을 부리는것은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진 미국의 과렴치성을 그대로 보여줄뿐이라고 밝혔다.

전체 재증조선경제인들은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를 적극 지지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미국이 북침합동군사연습에 함선집단 투입, 남조선의 3개 항에 동시 입항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미국이 《독수리》 북침합동군사연습에 미해군함선들을 투입하였다.

미군함선집단이 8일 조선동, 서, 남해의 3개 항에 동시에 쓸어들었다.

이지스유도미사일구축함 《커티스 윌버》호와 이지스구축함 《라센》호가 경기도의 평택항에 기여들었다.

한편 미사일순양함 《레이크 에리》호는 전라남도 목포항에, 이지스구축함 《하워드》호는 남조선강원도 동해항에 닻을 내렸다.

미해군함선들은 《토마호크》 미사일, 《SM-3》, 《SM-2》 대공미사일, 대잠수함로켓 등 타격수단들을 탑재하고있다.

이 함선집단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을 노린 대규모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여 대잠수함훈련 및 해상공방전 등 해상종합훈련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미해군의 타격집단이 여러 항구로 동시에 기여든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 3일 핵잠수함의 부산

입항에 이어 해상타격무력전력없는 규모로 기여든 사실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 보이고있다.

본사기자

《나에게는 내 아이들이 퍼부석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사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1963년 8월 미국의 이름있는 인권활동가였던 킹목사가 《위싱턴행진》이라고 불려온 행사에서 한 말이다.

그때로부터 50여년이 지났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이라는 수식어로운 오명으로 세상사람들의 비난과 저주를 받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허울좋은 간판아래서 지금 미국의 절대다수 근로대중은 최악의 인권상황에서 허덕이고있다.

미국가안정보장국을 비롯한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레로감시》라는 미명하에 미국뿐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천문학적으로 개인사생활정보를 손전화기와 인터넷을 통하여 비법적으로 감시, 탐취하였다. 이것은 이제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정보기관들의 본을 따라

공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사법당국도 인권침해행위에 앞장서고 있다.

뉴욕의 한 경찰이 100명의 여성들에 대한 살인흉계를 꾸미고 그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자료화하여 가지고있는 사실이 드러났는가 하면 시카고시의 경찰들처럼 흑인남성들을 《수상한자》로 잡아

들 회색자로 되고있는 현실은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 《문명》이 낡은 또 하나의 사회죄비극이다.

미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걸렸다면 총기를 휘둘러대는데 대한 방비책으로 교원들에게 사격훈련을 주는 등 《학교의 무장화》가 추진되고있는 가운데 신문 《위싱턴 포스트》는 펜실바니아

매고있는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돈이 없으면 병이 나도 죽어야만 하는 반인민적인 보건제도하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런 건강담보도 받지 못하고있다.

지난해 9월 17일에 발표된 미국인구조사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의로보험에 들지 못해 치료를 제대

군대안까지 만연된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과 여성들과 어린이유괴 및 인신매사견들, 굶주림에 시달리는 빈민들의 비참한 처지 등은 인권유린으로 악명높은 미국사회의 진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반레로》의 간판을 내걸고 참혹한 인권

침해행위를 동반한 국가테로범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미국의 발길이 닿은 나라들마다에서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이 미군부인기의 미사일공격으로 숨지고있으며 판다나모미해군기지감옥을 비롯한 곳곳의 감옥들에서는 《레로협》도 감하였을 수감자들간의 인강의 상상을 초월하는 혹독한 고문이 가해져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이밖에도 사회전반과 지어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조차 없는 나라

주 바틀러군의 교육위원회가 소학교를 포함하여 군안의 14개 학교들에 무장인원들을 배치하기로 한데 대해 전하였다.

군로자들에게 있어서 기본 권리의 하나인 로동의 권리도 미국에서는 한가닥 꿈에 지나지 않는다.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올해 1월까지 실업자수가 1 020만 명에 이르렀으며 전국적으로 약 600만명에 달하는 24살미만 청년들이 국가와 사회의 관심밖에 밀려나 거리를 헤

로 받지 못한 주민들의 수는 약 4 800만명을 헤아렸다.

미국에서는 피부색과 민족별, 성별, 나이에 따르는 차별행위가 극심한것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이 만연되고있다.

단적인 실례로 《보스톤개관》 2013년 1~2월부에 의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보통 200만명이상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선거할 권리를 빼앗기고있다.

이밖에도 사회전반과 지어

유린행위를 동반한 국가테로범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미국의 발길이 닿은 나라들마다에서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이 미군부인기의 미사일공격으로 숨지고있으며 판다나모미해군기지감옥을 비롯한 곳곳의 감옥들에서는 《레로협》도 감하였을 수감자들간의 인강의 상상을 초월하는 혹독한 고문이 가해져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정확한

미국은 남을 걸고들기 전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미국내와 세계도처에서 감행한 저들의 피비린내나는 인강살육만행, 인권유린만행부터 역사앞에, 인류에게 속죄해야 마땅하다.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는 나라》, 바로 이것이 오늘날 미국에 대한 세계의 일치한 평가이다.

정확한

송고한 인민사랑의 메아리는 세월의 언덕을 넘어

메아리사격관을 찾아서



평양시 청춘거리의 풍치수려한 곳에 위치한 메아리사격관이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기지로 훌륭히 개진되어 얼마전부터 봉사를 시작하였다.

위치부터가 명당자리인 메아리사격관은 어디를 돌아보아도 감탄을 자아낸다. 숲속이 우거진 야산기슭을 따라 여러동의 봉사 건물들이 계단식으로 조화롭게 들어앉았는데 마치 현대적이면서도 휴양소를 방불케 한다.

야외사격장, 야외체육장 등으로 이루어진 메아리사격관의 1층에는 광선총사격장, 50m보총사격장, 삼정, 전자오락실 등이, 2층에는 30m실내활쏘기장, 25m권총사격장, 전자권총사격장, 사격교육용 등이 자리잡고 있다. 본관내부의 청정과 바닥에 원형사격과녁을 형상한 조명과 부각장식은 사격관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

메아리사격관이 이렇듯 현대적인 대중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설수 있는것은 절세위인들의 송고한 인민사랑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정서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 늘 마음써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총속에 지난 시기 메아리사격관은 수많은 사격애호가들의 마음속에 친근하게 자리잡아왔다.

아버이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메아리사격관을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더 잘 이바지하는 종합적인 대중봉사기지로 훌륭히 꾸릴 구상을 펼쳐치고 설계와 건설력량, 자재 등 개진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메아리사격관은 공사가 시작된지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그 면모를 새롭게 일신할수 있었다.

지난 2월 새로 개진된 메아리사격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인수님께서서는 설계와 시공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니 마치 호텔에 온것 같다고, 사격관이 문을 열면 인민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귀중한 문화적재부를 안겨줄수 있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이곳 봉사원 서항순은 자애로운 원수님께서 총소리의 세기와 사격장의 조도에 대해서도 료해하시며 사람들이 사격할 때 귀를 상할수 있으므로 귀마개를 해줄때 대해서와 목표표 더 크게 만들어 세우주며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관람석의 경사진 통로에 계단을 만들어 줄테 대하여 친어머니심정으로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고 격정에 겨워 이야기하였다.

식당에 놓인 가루와 메아리사격장을 찾은 인민들의 교통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헤아려주시 원수님의 은정을 가슴

긴장감과 쾌감, 사격의 묘미를 느껴보다

《탕! 탕! 탕!》 여기는 얼마전 훌륭히 개진되어 봉사를 시작한 메아리사격관이다. 요즘 이곳은 사격애호가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근로자들로 흥성거리고 있다.

귀마개를 한 사람들이 일렬로 줄지어 각기 자기 좌지를 차지한 다음 긴 보총을 어깨에 대고 방아쇠를 당긴다. 그들중에는 중학교를 갓 졸업한 나 어린 처녀도 있고 중년나이의 현숙한 녀성도 보인다.

조금은 버거워보이는 총을 어깨에 밀착시키고 사격좌지를 차지한 처녀의 표정에서는 목표를 명중시키겠다는 굳은 각오가 엿보인다. 순간 《탕-》 하는 총소리와 함께 50m밖에 있는 목표판에 총알이 박혔다. 명중!

(거참, 보기와는 다른데...)

《한번 총을 쏘보십시오. 사격은 옆에서 보는것보다

직접 쏘보아야 그 재미를 알수 있습니다.》

나 어린 처녀가 목표판을 명중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워하는 기자의 손을 잡아끌며 봉사원이 하는 말이었다.

《자세는 최대한 낮추고 원형조분안에 조성을 맞추고 천천히 목표의 중심중부를 겨누십시오. 호흡조절을 잘한 다음에 지그시 방아쇠를 당기십시오.》

봉사원의 지시에 따라 목표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더니 총성이 울리는것과 함께 어깨에 약간의 충격이 전해졌다. 순간 일떠름해졌지만 뭘지 모를 쾌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내가 쏜 8번 좌지에 설치된 컴퓨터화면에 사격결과가 현시되었다. 명중이었다.

《어떻습니까?》 통쾌하지요? 목표가 명중될 때의 짜릿한 쾌감이야말로 사격의 묘미랍니다.》

메아리사격관이 훌륭히 개

진되어 봉사를 시작한 지난 3월 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을 찾는다하는 한 사격애호가 하는 말이었다.

사격을 시작한지 18년 된다는 그는 목표를 겨눌 때의 팽팽한 긴장감, 목표를 명중했을 때의 짜릿한 통쾌감을 사격의 매력으로 꼽으며 사격을 하고나면 스트레스가 순간에 풀린다고 하면서 자주 사격을 할것을 권고하였다.

사격은 화약을 리용하는 총이 나온 때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5세기에는 스위스에서 화승총을 리용한 사격경기가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5%의 체력과 95%의 정신력이 요구되는 사격은 스트레소스뿐 아니라 집중력을 높여주는 체육종목인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메아리사격관 야외사격장에서의 사격은 제일 인기를 끄는 종목이다.

이곳에는 12개의 사격좌치가 있는데 그중 11번과 12번 좌치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차지하려고 하는 인기좌치이다. 바로 그중에서 평, 탁을 비롯한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을 사격할수 있기때문이다. 청신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며 살아 움직이는 평이나 탁들을 사격하는 재미란...

《평을 쏘아맞히는 손님이 많습니까?》

《다들 얼마나 사격명수들인지 모르답니다. 10발을 쏘서 6마리의 평을 명중시킨 손님도 있고 매일 와서 평사냥을 하고 가는 손님도 있습니다.》

평, 탁사격이 손님들에서 대단한 인기를 끄는데는 살아있는 동물들을 사격할수 있다는데도 있지만 자기가 쏘아맞힌 평과 탁을 가지고 돌아오는 즐거움에서 오는 재미가 가장 큰 이유인것이다. (인민들의 이름이 일숙이, 이숙이가 맞는가.)

본사기자 김준경

메아리사격관에 누구나 취미와 기호에 따라 마음껏 사격할수 있는 각종 사격장들이 그치지 않고 갖추어져있다.

◆ **광선총사격장**
광선총사격장은 어린이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취미에 맞게 광선(레이저 빛)을 내는 권총과 보총으로 대형투영관에 현시된 목표들을 사격하는 장소이다. 여기서는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선택한 광선총으로 《술속에서 뛰노는》 토끼, 사슴, 평 등 동물들중에서 인민의 질승을 선택하여 사격할수 있다. 전자권총사격장은 5개 탁으로 되어있는데 사격자들은 권총으로 화면에 나오는 원형목표판과 공중에 매달린 병 등 목표들을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통일을 그리며 사는 명가수

무겁게 짓누르는 괴로움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못하다.

현재 최삼숙의 내형제들은 북과 남, 해외에 흩어져 살고있다. 할머니의 피줄을 이은 혈육들이건만 만언니는 프랑스에서, 둘째언니는 남쪽에서, 최삼숙과 남동생(최명원)은 북에서 오랜 세월 리벌의 고통속에 살았다. 그의 가정이야말로 국토량탄과 분리의 직접적피해자, 민족수난의 축소인 셈이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외세가 우리 겨레에게 강요한 민족분리의 아픔이 얼마나 쓰라린것인가를 통절히 새겨안는 시간들이었다.

《가장 우수한 목소리를 선물하다》

1970년대부터 공화국인들은 최삼숙의 노래를 늘 들었다. 목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민족적정서가 넘치는 부드럽고 유순하면서도 은근한 그의 노래소리가 울릴 때면 누구나 가던 길을 멈추고 노래의 서정세계에 빠져들곤 했다. 종일 들어도 싫지 않았던 최삼숙의 노래라고 했다.

최삼숙은 영화 및 방송음악단 가수로서 40여년간 《꽃파는 처녀》, 《열네번째 겨울》, 《심장에 남는 사람》, 《도라지꽃》을 비롯한 수백편의 영화주제가들을 형성하였다.

특히 그가 부른 노래 《꽃파는 처녀》는 수십년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있다. 몇해전 중국 방문공연시 그가 부른 《꽃파는 처녀》의 노래는 관중들의 심금을 울려잡았다. 이와 관련한 중국신문기사의

항을 귀중한 노래 《울며 헤진 부산향》의 인기는 대단했다. 가슴을 쥐어뜯는 리벌의 감정을 담아 그가 《울며 헤진 부산향》을 부를 때면 사람들은 망국의 서러움이 북받쳐올라 흐느낌속에 박수갈채를 보내곤 했다.

▶ 언제부터 가수가 될 꿈을 품고있었는지.

《중학시절 예술에 취미를 가지고 평양학생소년궁전소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동시에 줄을 울고 아동극에도 출연했지만 성악에 남다른 기질이 있다고는 생각 못했어.》

▶ 재능있는 가수로 성공하기까지

학창시절을 마친 후 평양방직공장(당시) 방직공이 된 최삼숙은 로동이 그대로 노래이고 기쁨인 흥겨운 일터에서 공장예술소조에 망라되어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타면서 음악적재능을 꽃피워나갔다. 당시 최삼숙이 주축이 되어 출연한 가야금병창중목은 전국로동자예술축전에서 특등,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최삼숙은 공장예술소조원으로 부터 영화음악단(당시) 성악배우로 소환되었다.

▶ 영화음악가로서 처음 형성한 노래는?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의 주제가 《꽃파는 처녀》입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가곡 《꽃파는 처녀》를 예술영화로 옮길 때였습니다.》

▶ 그에게서 1971년 9월 23일은 가장 잊을수 없는 날이다. 《그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앞에서 여러명의 가수들이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의 주제를 불러드렸는데 신인가수인 저의 차례는

《(웃음)그건 소문이에요. 언니들은 가수가 된적이 없었습니다. (최삼숙이 노래를 잘 부르니 언니들도 웅당 노래를 잘하겠지.)》 하고 사람들이 속단합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지금도 사람들은 《언니들의 이름이 일숙이, 이숙이가 맞는가.》고 묻곤 합니다. 언니들의 이름이 최현숙, 최경숙인데 내 이름이 최삼숙이니 《언니들은 최일숙, 최이숙》 일것이라고 스스로가 《결론》 내리거립니다. 어때요, 비슷하지 않아요?》 이리하며 최삼숙은 우스워 입을 싸꿨었다. 인기있는 배우들에 대하여 《삼숙》이라 이름이 관심 때문인지 사실과 맞지 않는 억측을 날을 때도 있는 것이다.

▶ 울며 발버둥치는 어린 자식들

▶ 언니들과는 어떻게 헤어졌는지요?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 부러 해야 할것 같군요. 해방후 반미항쟁이 남조선땅을 휩쓸 때 저의 어머니(김봉점)는 다섯달이 갓 지난 첫머리(둘레말)를 입고 통일애국투쟁에 나섰다.》

▶ 그러던 어느날 애국자들에 대한 검거선동이 일었다. 체포선원명단에는 김봉점의 이름도 들어있었다. 위급한 정황속에서 김봉점은 부득불 1살, 3살 난 어린 딸들과 헤어져 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1948년 마가을이었다.

▶ 그후 다시 만나지 못했는가요?

《후에 한번 만났다고 해요. 전쟁이 일어나 서울이 해방되자 어머니는 서울시보 건립명 서기장으로 전시보건의 사업을 보장하였습니다.》

▶ 그러던 어느날 김봉점은 그처럼 보고싶었던 어린 딸들과 만났다. 그때까지 함께 살던 할머니를 《어머니》로 알고있던 어린 딸들은 선뜻 어머니에게 안길법을 못했다. 2년만에 이루어진 모녀간의 상봉이었으나 또다시 자식들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안떨어지겠다는 자식들에게 《엄마는 인차 돌아온

《서정가요계의 왕》, 《국보보가수》, 《진지하고 매력있는 목소리》... 전 영화 및 방송음악단 가수 인민배우 최삼숙(63살)에 대한 애청은 많고도 많다. 그만큼 최삼숙은 가수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의 인생은 남들이 부러워할만큼 영광과 궁지로 가득차있다.

하지만 최삼숙이 요란한 박수갈채와 축하의 꽃다발속에 묻혀 웃고있을 때 그의 마음 한구석을 만들처럼

비는 속에서도 찢는에 언니를 알아보겠더군요. 세월이 흘러도 속일수 없는것이 혈육인것 같아요.

▶ 만언니말에 의하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두 언니들은 줄지에 《고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고생인들 안했겠나요. 외로운 때마다 언니들은 북녘 하늘가를 바라보며 어머니를 원망하곤 했답니다. 하지만 만언니는 것처럼 《원망스런것》 어머니가 어찌하여 삶과 죽음의 계선을 넘나들며 사랑하는 자식을 버리고 가 버리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하는 사연을 듣고는 어머니처럼 통일을 위해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했답니다.》

▶ 이렇게 최삼숙은 근 60년만에 그리던 언니와 눈물겹게 상봉했다. 하지만 상봉은 《반쪽짜리 만남》으로 그쳐야 했다. 아직도 남쪽에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둘째언니가 있다.

▶ 언니와 헤어졌을 때 눈물겹게 흘렸던 최삼숙은 북과 남, 해외로 뿔뿔이 갈라져 살아야 하는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가 이어온 단일민족이 과연 언제까지 외세에 의한 분리의 고통을 강요당해야 하는가.

▶ 최삼숙의 이야기를 듣는 기자의 마음은 아프고 쓰렸다. 북과 남으로 갈라진 혈육들이 서로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이 뇌리를 찔렀다. 다시는 헤어짐을 모르는 단란하고 웃음띤 생활이 닮아난 통일이라고 확신했다.

▶ 최삼숙은 공화국의 통일 애국주의에 의하여 최근 북남사이에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마련되고있는데 대대 이야기하면서 《은근하게 일제안을 통일외교는 반드시 울것》이라며 활짝 웃었다.

▶ 본사기자 홍범식

▶ 《꽃파는 처녀》는 수십년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있다. 몇해전 중국 방문공연시 그가 부른 《꽃파는 처녀》의 노래는 관중들의 심금을 울려잡았다. 이와 관련한 중국신문기사의

▶ 《꽃파는 처녀》는 수십년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있다. 몇해전 중국 방문공연시 그가 부른 《꽃파는 처녀》의 노래는 관중들의 심금을 울려잡았다. 이와 관련한 중국신문기사의

▶ 《꽃파는 처녀》는 수십년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있다. 몇해전 중국 방문공연시 그가 부른 《꽃파는 처녀》의 노래는 관중들의 심금을 울려잡았다. 이와 관련한 중국신문기사의





우리 나라에는 그 어디에나 명승지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백두산은 아름답고 신비한 천지까지 안고있어 단연 세계의 명산으로 그 이름이 높다.

웅장하고 장엄한 령봉들에 둘러싸여있는 백두산천지는 넓고 깊으며 신비하고 천변만화할뿐 아니라 우아하고 아름다운것으로 하여 오래전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우리 선조들은 먼 옛날부터 백두산천지를 큰못이라는 뜻과 신비로움을 상징하여 《대지》, 《대력》, 《천상수》, 《룡담》, 《룡궁담》 등으로 불렀다.

백두산천지는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화구호이다.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가 밝혀낸데 의하면 천지바닥 지형은 단면상으로 볼 때 그 방향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세계의 명승 백두산천지

있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밀이 우뚝한 점시형태이다.

둘레가 수십리가 넘으며 바닥지형이 거대한 점시모양을 이룬 천지에는 방대한 량의 물이 있다.

천지의 물은 매우 맑다. 천지의 맑은 물에 주위의 령봉들과 하늘이 비껴어 신비롭기 그지없다. 이 지형에 익숙된 칼새들까지도 천지물속을 하늘로 알고 내려꽂히는 때가 적지 않다.

천지물은 위생학적견지에서 볼 때에도 대단히 좋다. 백두령봉의 룡선과 분화구벽 그리고 천지호반의 알칼리와 토양조진, 식물피부에 의하여 대기강수가 충분히려과되고 정화된다.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에

서 조사한 자료를 놓고볼 때 천지물은 위생학적으로 아주 깨끗한 물이라는것을 알 수 있다.

천지의 겨울풍경은 백두산에서만 볼수 있는 장관이다.

천지는 9월 하순부터 얼기 시작하여 12월 상순에 완전히 얼어붙는다. 천지가 얼기 시작할 때 호안에는 두터운 얼음판들이 쌓이고 쌓이며 여기에 물보라까지 뿌려져 얼어붙은 모양은 천태만상을 이루고 얼벽과 린집한 호안 등에 얼음폭포와 고드름이 드리워져 하나의 얼음자연박물관을 이룬다.

천지가 완전히 얼어붙은 다음 얼음면에 들어서면 여

름철의 물속보다 더 깊이 들며 보인다. 이것은 물면과 달리 얼음면이 바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것과 관련된다.

천지의 얼음풀리는 5월 하순경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6월중순이면 끝난다. 어떤 해에는 6월말에야 끝난다.

이 시기 얼음들이 풀리면서 악기의 줄을 튕기는것과 같은 신기한 소리까지 난다. 얼음이 풀리면 천지의 맑은 물이 또다시 여러가지 조화를 부리며 신비경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백두산천지는 우리 나라의 자랑일뿐 아니라 세상사람들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계의 명승이다.

까지 하루종일 떠돌고 다니기도 한다.

안개도 구름도 없고 바람조차 불지 않는 날이면 백두령봉의 장엄한 모습과 천지호반, 천지의 설경이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안겨온다.

천지의 얼음풀리는 5월 하순경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6월중순이면 끝난다. 어떤 해에는 6월말에야 끝난다.

이 시기 얼음들이 풀리면서 악기의 줄을 튕기는것과 같은 신기한 소리까지 난다. 얼음이 풀리면 천지의 맑은 물이 또다시 여러가지 조화를 부리며 신비경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백두산천지는 우리 나라의 자랑일뿐 아니라 세상사람들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계의 명승이다.

본사기자

민족의 자랑-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현화사비

평양민속공원에 만들어놓은 고려시기 유적들은 주로 당시 국교로서 적극 장려된 불교와 관련된 유적들이다. 당시 불교는 하나의 사조로서 동아시아에 널리 퍼져있었다.

고려국가를 세운 왕건은 봉건통치에 유리한 불교의 영향을 특별히 중요시하면서 불교를 적극 장려하였으며 도처에 큰 규모의 절들을 많이 건설하게 하였다.

당시 인민들과 조각가들은 이러한 불교와 관련된 사찰들을 건설하면서 생활에 대한 자기들의 소박한 견해를 담았으며 오랜 경험을 통하여 축적되고 세련된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민족의 우수한 재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렇듯 우리 민족의 소박한 생활감정과 정서, 우수한 재능이 현화사비와 같은 고려유적들에 잘 반영되어 있다.

평양민속공원에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놓은 현화사비는 원래 개성시 장풍군 월고리 령추산 남쪽기슭의 현화사터에 있던 비의 모형이다.

원래 현화사비는 1018년에 세운 현화사의 래력을 전하기 위해 1021년에 세운것이다.

비는 거부기받침과 비몸, 룡틀임비머리로 이루어졌는데 거부기의 받침과 비머리는 화강암으로 만들었고 비

몸은 대리석을 다듬어 만들었다. 배와 다리를 땅에 붙이고 아가리를 딱 다문채 움추린 모습을 쳐든 거부기받침의 길이는 2.16m, 너비는 2.65m, 높이는 90cm이다. 거부기의 부름튼 눈, 아가리, 귀뒤로 뻗은 지느러미, 발톱 등이 생동하게 형성되고 거부기 잔등무늬는 한줄로 간결하게 표현되었다.

높이가 2.6m인 비몸에는 앞뒤에 240여자의 글자가 새겨져있고 양측면에는 오르내리는 두마리의 룡이 부각되어 있으며 정면 윗부분에는 비의 이름과 해와 달을 상징하는 금까마귀와 옥토끼가 새겨져있다. 구름속에서 서로 엉켜돌아가는 룡조각으로 된 비머리의 높이는 60cm이다.

현화사비가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비가 크고 그 조각장식이 우수하기때문이다. 현화사비는 종래의 전통적인 수법을 벗어나 비몸에는 화려한 조각장식을 한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였을뿐 아니라 거기에 새긴 장식조각의 처리가 대단히 훌륭하여 고려비석장식조각의 특이한 형식을 대표하는 우수한 작품의 하나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고영숙



공화국의 자랑 많은 천연기념물중에는 그 과학적 가치와 관상적의의뿐 아니라 조선민족의 불굴의 애국정신을 상징하는 유명한 식물도 있다.

그것이 함경남도 금호지구 호단포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423호 3.1밤나무이다.

조선을 광복한후 일제는 중세기적공포정치로 우리 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버렸다.

일제의 악랄한 탄압과 략탈정치를 그대로 감수할수 없었던 우리 겨레는 드디어 1919년 3월 1일 전민족적인 반일봉기를 일으켰다. 이날 2천만 조선인민은 어른, 아이, 남자, 여자 할것없이 모두 거리에 떨쳐나와 《일

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조선독립 만세!》의 구호를 웨치면서 일제강점자들을 반대하여 격렬한 싸움을 벌여왔다.

이들은 조선인민은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 자주정신인 반일민이며 나라를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애국정신을 가진 인민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기 위하여 길이 146m, 너비 78m의 구간에 100여그루의 밤나무로 《3.1》이라는 글자를 새기였다.

지금 이 밤나무들의 평균 높이는 8.8m, 뿌리목둘레는 1.5m, 나무갓직경은 10m정도이다.

근세기나 자란 나무들에서는 해마다 수천kg이나 되는 밤을 따고있다.

꽃피는 5월말경에는 수많은 꿀벌들이 날아드는 풍경이 이채롭고 밤의 계절인 9-10월이면 가지가 휘도록 주렁주렁 매달려 길손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밤알은 속껍질이 잘 벗겨지면서도 단맛이 짙아 인기를 끌고있다.

본사기자

애국정신을 상징하는 3.1밤나무

애국적인민들은 평양밤나무의 씨앗을 구하여 나무로 키워 감후봉의 남쪽기슭에 심었다.

이들은 조선인민은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 자주정신인 반일민이며 나라를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애국정신을 가진 인민이라는것을 온

본사기자

훌륭한 뇌훈련수단인 신문

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고력, 전달, 기억 등 고급 정신적작용을 담당하고있는 전두엽이며 이 부위가 쇠약해져 뇌가 화된다.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감정이나 행동을 억제하기 힘들고 쉽게 화를 내는 현상들은 모두 전두엽의 기능저하

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자면 뇌를 꾸준히 단련시켜야 한다.

물론 교전작품들이나 명작으로도 이와 같은 훈련을 할수 있지만 신문은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뇌를 훈련시키는데 좋다고 한다.

더욱이 신문에는 문장뿐 아니라 수자와 도표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기때문에 다채로운 훈련을 할수 있다.

본사기자

2014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세계신기록 수립 금, 은메달 정취

얼마전 타이에서 진행된 2014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공화국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정취하였다.

청소년급 여자 44kg급경기에 출전한 리성금선수는 순간체력과 빠른 추기 등을 잘 결합하여 추켜올리기에서 93kg을 보기 좋게 성공시키며 세계신기록을 수립하였다.

끌어올리기에서도 66kg을 들어올려 리성금선수는 종합 1등으로 3개의 금메달

을 정취하였다. 또한 림은심선수는 청년 여자 58kg급경기에서 1등을 하여 금메달 3개를 획득하였다.

경기에 출전한 그는 끌어올리기에서 93kg, 추켜올리기에서 113kg을 성공시켜 세부종목과 종합 성적에서 다같이 우승하였다.

한편 리현화선수는 청소년급 여자 44kg급경기 추켜올리기와 끌어올리기에서 2위와 3위를 하고 중

합 2등을, 김영근선수는 청소년급 남자 50kg급경기 추켜올리기에서 2위를 하고 종합 3등을, 박정주선수는 청소년급 남자 56kg급경기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에서 각각 3위를 하고 종합 3등을 하였다.

청년여자 63kg급경기에서 김효심선수는 끌어올리기 2위, 추켜올리기 2위로 종합 2등을 하여 3개의 은메달을 받았다.

본사기자

《김치맛 참 좋구만!》 (3)

글 김정희, 그림 김윤일

령감이 하는 행동을 어이없이 바라보던 리씨는 당장이 목구멍으로 섭섭한 말이 튀어나오는것을 가까스로 삼키었다.

(여보 령감, 꿀물도 늘 먹으면 쓴 법이랍니다. 밥그릇도 남의 밥그릇이 더 커보이고 색시도 남의 색시가 더 고와보인다. 말이 바로 령감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 같구만요.)

이날부터 최령감은 제 집 김치를 남의 집 김치로 알고 하루가 멀다하게 김치팡이네 집 김치를 얻어오라고 성가시게 굴었으며 그럴적마다 리씨는 이웃집에 가서 시간을 끌다가 제 집 김치를 모양새를 달리하여 상에 올려곤 하였다.

그런 속에서 해는 바뀌어 정월대보름날이 왔다. 정월대보름명절이자 최령감의 생일날이어서 해마다 이날이 오면 리씨는 이웃들을 청하여 명절놀이도 하고 성의

껏 준비한 음식도 나누어 즐겁게 보내곤 하였다.

이날도 리씨는 여느해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명절음식과 생일음식들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이웃들을 청하여 밥과 나물반찬들, 여러가지 떡, 과자 등이 올라있었으며 음식그릇사이에는 먹음직스러운 김치그릇이 놓여 구미를 돋구고있었다.

이웃들이 모두 방에 들어와 상에 빙 둘러앉자 최령감은 상위의 음식들을 한번씩 훑어보더니 부엌에 있던 허가 저절로 이사이를 출추듯 돌아가게 참 별맛이었다.

《여보 마누라, 오늘같은 날에야 뉘니뉘니 해도 김치판대 김치를 상위에 올려놓아야지. 그러니 얼른 뛰어가서 그 집 김치를 좀 얻어오우. 그쯤한것이야 당신 이 미리미리 알아서 해놓아야지 이렇게 꼭 짝어 말해야

하겠소. 쫓쫓, 어서 빨리 갔다 오우.》

《별세 그 집에서 령감 생일이라고 안주인이 김치를 가지고왔어요. 상위에 놓인 김치가 바로 그 김치예요.》

《음, 그래. 그럼 됐구만. 자 어서들 들기요.》

그제서야 최령감은 좁죽한듯 머리를 끄떡이더니 김치그릇을 먹기 편리하도록 손님들앞에 놓아주며 말하였다.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른 나라 귀빈이 특정도시를 방문하였을 때 시장이 행운의 열쇠를 증정하여 우의를 표시하는것은 하나의 관례로 되어있다.

행운의 열쇠를 증정하는것은 서양에서 시작된 풍습으로서 그 유래는 열쇠의 상징성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다.

열쇠는 자물쇠를 열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이다. 열쇠와 자물쇠는 재산을 무사히 보관하고 아울러 부를 자랑해보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로마신화에 나오는 문의신 야누스는 전쟁시기에는 문짝을 열어두고 평상시에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는 모양을 얼핏 본 최령감은 그 내인이 참 별나게 두 속스러워 하는구만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남의 집 안대를 푹바로 쳐다보기가 멋적어 얼굴도 보지 못한채 넉적 얼드러미 절을 하였다.

《내 입에 맞는 맛좋은 김

도 전에 입을 싸쥐고있던 사람들의 키득키득 하는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온 방안이 떠나갈듯 한 폭소가 터져나왔다.

《하하하...》
《허허허...》
《호호호...》
방바닥을 치고 두드리며

《그거야 뭐 그리 힘들게 있소. 누구신지 어서 방으로 올라오시우다.》

최령감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독촉하자 부엌에서는 너인들이 웅성웅성하며 리씨를 방안으로 끌어올리느라 한창 신경이질을 하였다. 한동안 들어가라느니 안 들어가겠다느니 밀며 당기며 씨름질을 하던 끝에 머리를 외로 튼 리씨가 너인들속에 싸여 방

치를 담긴 안주인에게 김치를 몹시 좋아하는 이 최령감이 절을 드리니 받아주시우.》

최령감의 말이 채 끝나기



최령감의 말이 채 끝나기